



제원 스님은 ... 1970년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0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하고 메릴랜드주립대 'MEI'를 수료했다. 1990~91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1992년 김음중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유니세프 불교인클럽 회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북구 소년소녀가장 50명 '희망체험' (미국 서부 여행)사업, 성북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사진=박재훈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 유렵연수를 개최하는 등 스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런 스님의 노력들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1999년·2001년 성북구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03년 성북구 우수기관 감사장, 2005년 서울시 최우수 기초푸드뱅크 공로패, 2013년 국무총리 기관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복지 포교를 20년 넘게 이어왔지만 훨씬 이전부터 스님은 다양한 포교 활동을 통해 타인과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왔다. 70년대 말에는 남가좌동 좌판상들을 위한 정기법회를 여는가하면, 80년대에는 미국 워싱턴 법주사를 건립해 해외포교에 매진했고, 90년대에는 조계종 사회부장을 역임하며 국립공원을 해제하려고 하는 정부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거리 좌판상들은 절에 가고 싶어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절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포교를 했죠. 작은 공간을 빌려 월 1회 정기 법회를 진행했어요. 이후 미국에 가셔도 남가좌동 상인들에게 편지로 용기를 주기도 했는데 한 상인은 그 편지를 두고 맨바닥에서 절을 했다고 해요."

스님은 80대 초반 2년 정도 동남아를 돌며 만행을 한다. 일본 대만 홍콩 등을 돌면서 세상을 두루 본 스님은 국제포교를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가방 두 개에 목탁과 춘하추동 옷 한 벌 씩, 그리고 돈 5백달러를 들고 갔죠. 처음에는 동부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워싱턴 교민들이 와서 법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워싱턴 법주사를 세우고 포교를 시작했죠. 당시 메릴랜드 주립대도 4년 정도 다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학생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그런 세상 공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8년 정도 미국에서 포교를 하고 90년 총무원 사회부장으로 오게 됐어요."

모든 인연에게 간절한 마음

스님이 사회부장으로 부임할 당시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국립공원이 사라지면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도립공원화되어 버리면 사유지의 땅들은 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절



유니세프 활동으로 찾아간 미얀마 국제구호 장면



소년소녀가장 50명과 함께한 미국 '희망체험'

주변에 리조트, 기도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사찰 스님들의 수행 환경도 침해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서니 정면으로 나서지 못했던 반대 의견의 정치인들도 매우 큰 지지를 해주었어요. 그때 선두에서 서서 조계종이 이 계획안을 백지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도움을 줬다는 생각조차 버려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복지관 봉사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한다. "사실 남을 돕는 일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봉사자들이 소외이웃 20여분에게 매일 도시락 서비스를 해요. 도시락 20개를 배달하려면 오전 9시에 나가 점심시간에 들어와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을 일이지, 그런데 특별한 날은 삼계탕을 드리기도 하는데 왜 밥은 안 가져왔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받는 분들이 예의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매일 투덜투덜대면 다음 생도 투덜대는 인연으로 태어나요. 지금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봉사자들에게 조언해요."

이 세상 살아가며 인연 닿는 곳 모두가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스님은 과거에 만났던 인연에게도 간절하고 지금 만난 인연에게도 간절하며 미래에 만날 인연에게도 간절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간절하지 않으면 열정도 없어요. 또 간절하지 않으면 나눠야겠다는 마음도 없죠. 나를 괴롭히는 인연조차도 수행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라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죠. 그저 모든 인연에게 간절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시장에서든 들에서든 그저 가는 곳 어디서든 이 모두를 만행이라 생각하며 모든 인연에 간절하고자 합니다."

벌써 비명을 만들어 놓았다는 스님. "기록은 없고 추억은 남겼지, 아냐?" ... 스님은 기록보다는 상대의 가슴에 추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 오늘도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재숙 기자 bwjns@hyunbul.com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김음중합사회복지관의 송편만들기

전법일기

국경·인종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

홍콩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

최근 홍콩에서 하모니라는 비구니 스님이 우리 선원에 도착하였다. 스님과의 인연은 작년에 미국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샌디에고 근처 탁났한 스님의 '디얼 파크(Deer park)'에 2박 3일 머물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는 스님에게서 활달하면서도 승가를 건 강하게 이끌고자 애쓰는 깊은 열정을 느꼈다. 스님은 홍콩센터의 주지로 있으면서 잠깐 다녀라 왔다고 했다.

그렇게 만난 스님에게서 어느날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한국불교를 경험하고 싶는데 이곳 센터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묻는 메일이었다. 시내라서 작고 시끄러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그곳 스님들은 탁났한 스님을 따라 세계 이곳 저곳에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머물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는 작아도 승가가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 기쁘게 오시라고 했다.

스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공학리무진을 타고 혼자 도착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서양식으로 포옹을 하고 다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크게 웃었다. 한마디로 문화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매달 있는 조계사청년회 저녁 법문을 해야 하는 날이 됐다. 문득 우리 청년들에게 탁났한 스님의 명상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하기를 요청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준다. 우리는 직장생활에 지친 현대의 청년들에게 이완명상을 함께 지도하기로 했다.

조계사는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귀여운 동자승들이 노오란 국화를 입고 반갑게 맞이 해준다. 가



그림·박구원

을을 듬뿍 느끼게 한다. 먼저 국화꽃 향기에 취하여 법당을 참배하고 법회에 들어갔다. 내가 먼저 삶의 에너지는 긴장이 아닌 편안함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하모니스님을 소개하면서 누워서 이완명상을 시작했다.

스님이 영어로 설명하면 내가 그것을 통역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에 깊게 빠져 들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한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국 노래를 하기를 권하였다. 나는 이번 영어담마캠프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Breathing in, Breathing out'을 부르며 '나뭇잎 배'를 불렀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따뜻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 보냈다. 문득 이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비구니가 되어 우연한

기회에 만나 왕래하며 사람들의 고통 돌봄을 함께 하고 있다. 영어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진다. 내가 과연 영어를 못했다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완명상을 마친 젊은이들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와 여유가 감돈다. 참으로 좋다. 법회가 끝나고 극락전을 나왔다. 여전히 조계사 대웅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스님이 감탄을 한다.

"한국불자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네요. 홍콩은 그렇지 않아요. 사찰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늘 한국불교의 모자람을 보며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스님의 눈에 비치는 한국불교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 살아있고 힘차다. 스님이 가고 싶은 곳은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와 전정기념관이라고 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수천의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위해 죽었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스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어느덧 도반이 되었다. 우리에게 국경과 인종과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은 선원이 작아서 많은 스님들을 초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외국스님들을 초청하여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나라 불교와 교류해 함께 아름다운 승가를 만들 수 있는 날을 꿈꿔 본다. 서울 중 심부에 그런 선원을 반드시 건립할 것을 서원하며 나는 오늘도 수행하고 전법한다.



자우 스님(베트남국제선원 선원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병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창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움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질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